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부부갈등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력

김은정¹⁾ 박성덕²⁾ 김경철³⁾

요약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의 2차(2009년)년도에서 ~ 4차(2011년)년도까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부부갈등을 매개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다변량 잠재성장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변인별 최적성장모형을 분석해 본 결과 부부갈등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는 선형변화 모형을 보였으나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선형변화 모형으로 설명되지 않고 단일잠재모형으로 설명되었다.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변인별 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부부갈등은 초기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초기치도 높았으며, 부부갈등이 점점 크게 늘어날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도 더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서 부부갈등의 매개효과를 검증해 본 결과 초기치는 매개효과가 없이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 간의 직접효과만 있었지만 변화율에는 부부갈등의 완전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어머니의 초기 양육스트레스 값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부갈등과 같은 다양한 공변인들을 통해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제어: 잠재성장모형, 아버지의 양육참여,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양육 스트레스

1) 기전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2) 원광대학교 유아교육과 강사

3) 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I. 서론

보건복지부와 육아정책연구소에서 발표한 2012년 보육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보육·교육비 지원에 따라 양육비 경감 효과는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지만, 어머니 2명 중 1명은 양육에 혼란을 느끼고 있으며, 5명 중 1명은 아이가 귀찮고 짜증스러울 때가 많다고 응답하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최근 정부의 보육·교육비 지원으로 가정의 양육비 부담은 줄었지만, 엄마들이 느끼는 육아 스트레스는 여전하다는 것을 나타낸다(서문희, 양미선, 김은설, 최윤경, 유해미, 손창균, 이혜민, 2012).

양육 스트레스란 부모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느끼는 고통(Abidin, 1990),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부모가 인지하는 곤란 정도(이주옥, 2008)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양육 스트레스는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어머니는 자녀를 적절히 양육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Abidin, 1992). 또한 양육 스트레스 수준과 부적절한 양육행동은 단순히 선형적인 관계가 아니며, 매우 낮은 수준의 양육 스트레스도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Abidin, 1992). 이처럼 양육 스트레스는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생애 초기부터 초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영유아의 사회, 정서, 행동 발달에 폭넓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안재진, 2011).

이러한 양육 스트레스는 부모의 자존감, 기분, 신념 등의 부모요인과 아동의 기질, 연령, 발달단계, 성별과 같은 아동요인 그리고 소득, 결혼관계의 질, 사회적 지지와 같은 가족체계요인의 영향을 받는다(Crnic & Acevedo, 1995).

이 세 가지 요인 중에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를 들 수 있다(손수민, 2012). 사회적 지지 중에서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주는 요인으로 아버지의 지지가 지적되고 있는데(류우영·최진아·이숙, 1998; 전영자, 1996), 아버지의 지지 중 특히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김종훈·양소영·성지현, 2013; 이정순, 2003; 이지원, 2003).

전통사회에서는 자녀양육이 주로 어머니 역할로 인식되었으나(조성자·손은주, 1998; 최경순, 1992), Lamb(1975)가 아버지를 ‘잊혀진 양육자’라고 지칭하며 아동발달과 자녀양육에 있어 아버지의 역할을 재조명한 이후 양육자로서의 아버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또한 Lamb(1981)는 현대를 ‘아버지 역할의 재발견 시대’라고 하면서 현대의 아버지에 대한 역할 증가와 사회·경제적, 아동 발달적 측면에서 아버

지를 매우 중요하게 역설하였다. 이후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자녀의 세 발달 영역과, 아버지 자신, 어머니 그리고 부부관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자녀의 성역할, 인지발달, 사회·정서발달, 자아존중감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김선영, 1985; 김정신, 2000; 박운영, 2005; 양득주, 1998; Hetherington & Stanley-Hagan, 1999; Wentzel, 1992), 자녀뿐만 아니라 아버지 자신의 자아존중감과 자신감, 아버지 역할만족도, 아버지의 인성 발달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설경옥·문혁준, 2006; Riley, 1990; Sagi, 1982), 그리고 어머니의 정서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김정·이지현, 2005; Riley, 1990), 마지막으로 부부관계와 부부역할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양미경, 1996; Cox, Owen, Lewis & Henderson, 1989)들이 그것이다. 특히 Belsky(1984)는 부모의 양육 행동 과정에서 배우자로부터의 사랑과 수용은 다른 대인관계에서 제공받을 수 없는 질적으로 독특한 자원이며, 이러한 부부관계의 질은 부모의 적절한 양육행동과 연관되는 가장 중요한 지원체계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가정에서 양육자로서의 자녀와의 관계증진은 물론이고 부부사이의 바람직한 관계증진에도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며 궁극적으로 전체가족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양진희, 2009).

또한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어머니는 양육 스트레스 외에도 부부갈등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한다(강희경, 2003; 신숙재, 1997; 최정미·우희정, 2004). 특히 부부갈등은 서로 다른 가치관과 태도, 사고방식 및 특성을 지닌 부부가 함께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갈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구아영, 2000). 이러한 부부갈등이 심해지면 가정의 해체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부부갈등을 높게 지각하는 어머니의 경우 갈등상황으로 인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임현주·최향준·최선녀, 2012), 자녀의 부정적인 측면을 더 많이 인식하고 강압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Harlod & Canger, 1997).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고려해 볼 때 어머니가 느끼는 부부갈등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부갈등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넘어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중 위에서 언급한 아버지와 연관된 요인인 부부갈등은 배우자와 상충되는 기대, 욕구, 목표의 불일치로 인해 겪는 긴장과 갈등으로,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부모역할만족도, 양육행동에는 물론 자녀의 정서, 적응, 행동문제 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종훈·성지현, 2013; 도현심·김민정·최미경·김상원·조수정, 2012; 박미진·강지

현, 2012; 이형실, 2012).

이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부부갈등이라는 매개변인을 통해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안재진(2011)은 부의 양육참여는 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부부관계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서미정(2011)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사한 변인인 어머니의 산후우울에 대한 부의 양육참여의 영향은 결혼만족도 및 부부갈등을 통한 완전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아버지의 양육참여나 부부갈등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주는 횡단적인 영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시간적 변화와 같은 종단적 영향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일정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동일한 연구 대상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연구 설계인 종단적 연구 설계(허준, 2013)를 통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의 양육참여, 부부갈등 간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아버지의 양육참여, 부부갈등,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경향성이 있는가?
-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변화에 대한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부부갈등의 종단적 영향력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 연구문제 3. 부부갈등은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종단연구인 한국아동패널에서 수집한 2차(2009년)년도 ~ 4차(2011년)년도까지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의 목표 모집단은 2008년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전국의 신생아 가구이며, 표본 크기는

2000가구이다. 표본추출방법은 층화 2단계 추출방법으로, 전국의 의료기관을 1단계로 추출하고 2단계에서는 표본 의료기관별로 패널 모집기간 중에 출생하는 신생아 가구를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1차 패널 데이터가 대부분 출산한 지 6개월이 안된 가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조복희, 신나리, 안재진, 이정립, 최윤경, 송신영, 김주연, 김영원, 2009) 연구의 주요 변인인 아버지의 양육참여,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타당하게 측정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라고 판단하여 1차 패널 데이터를 제외하고 2차 패널데이터부터 4차 패널데이터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연구도구

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김기현과 강희경(1997)이 Abidin(1990)의 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PSL-SF) 등을 기초로 한국형으로 개발한 양육스트레스 측정도구가 사용되었다. 한국아동패널에서는 이 중 연구목적에 해당하는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만을 발췌하였다. 이 영역에 해당하는 12개 문항 중 2007년 예비조사에서 문항 진술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된 1개 문항과 신생아를 둔 어머니에게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된 1개 문항 등 총 2문항이 제외되었다. 2007년 한국아동패널 예비조사에서 신생아의 어머니 8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도구의 신뢰도 Cronbach $\alpha = .82$ 로 높게 나타났다.

나. 아버지의 양육참여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강희경(1988)과 홍성례(1995)의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가 사용되었다. 5점 Likert 척도로 되어 있으며 총 4개 문항으로 가능한 점수 범위는 4-2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원 도구에서 ‘아이’로 표현된 문항을 한국아동패널에서 ‘아기’로 수정하였다. 한국아동패널 연구에서는 4차에서부터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에게 양육참여를 조사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1차부터 조사된 어머니가 인지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2007년 예비조사에서 신생아의 어머니 8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86$ 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 부부갈등

부부갈등은 Markman, Stanley와 Blumberg(2001)가 개발한 도구가 사용되었으며 검사방법은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지필식 자기보고 방법이 사용되었다. 한국아동패널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둘 다에게 부부갈등에 대해서 조사하였으나 4차년도(2011년 조사) 자료 중 부부갈등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사이에 인식의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 선행연구(김은설, 정영해, 2012)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인지한 부부갈등만 변인으로 사용하였다. 5점 Likert 척도로 되어 있으며 8개 문항으로 가능한 점수 범위는 8점-4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간의 갈등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2007년 한국아동패널 예비조사에서 신생아의 어머니 8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90$ 으로 양호하였다.

3. 분석방법

모형의 분석은 우선 각 연구변인들 설명할 수 있는 최적의 변화모형을 추정하기 위해 각각의 변인에 대한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ing)을 분석하였다. 잠재성장모형은 종단자료를 이용하여 변수의 시간 축에 따른 변화를 다룬 모형이다(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하면 성장변화에서 개인차의 유의미한 정도, 개인차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 그리고 한 변수에서의 변화와 다른 변수에서의 변화 사이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Bollen & Curran, 2006, Duncan, Duncan, Strycker, Li, & Alport, 1999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각 변인들의 종단자료들이 단일잠재모형인지, 선형변화 모형인지를 1차적으로 분석하였다.

다음 단계로 각 연구변인들을 설명하는 최적의 성장모형을 선택한 후 이를 바탕으로 다변량 잠재성장모형(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으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은 변수가 여러 개인 경우 변수간의 관련성을 검증하는 것 뿐 아니라 변수들의 변화 사이의 관련성을 검증하는 것이 가능하다(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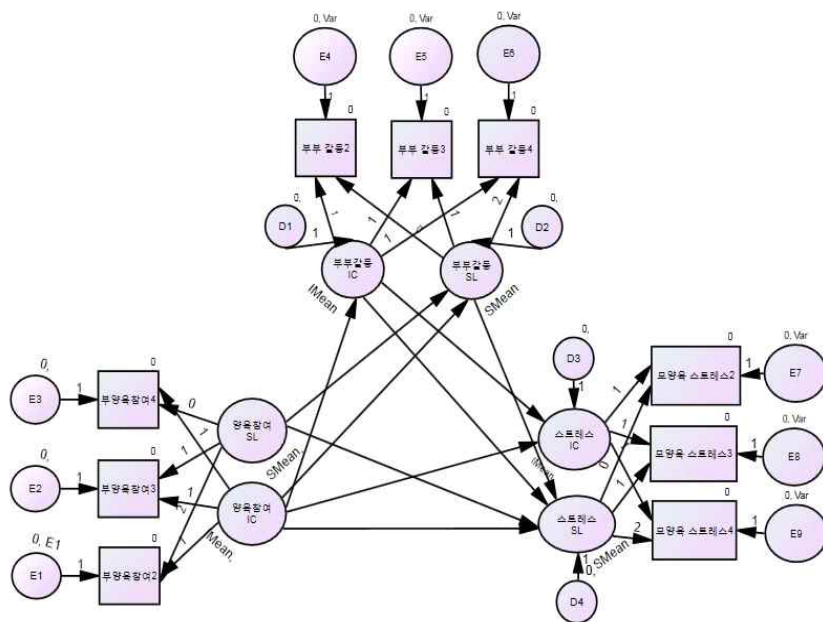
또한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부부갈등,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간접효과 검증은 Sobel test를 이용하였다. Sobel test 검증방법은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직접효과의 비표준화 계수와 표준오차를 이용해 Z통계치를 산출하는 방법으로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는 방법이다(Sobel, 1982).

잠재성장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영가설이 엄격하고, 표본크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χ^2 대신 증분적합도 지수인 TLI, CFI, 절대적합도 지수인 RMSEA 등을 사용하였다. RMSEA의 적합도 기준은 우종필(2012)의 기준에 따라 .05이하면 매우 좋음, .08이하면 양호 .1이하면 보통으로 판단하였다. TLI와 CFI는 Hu & Bentler(1999)의 기준에 따라 .90이상일 때 좋은 적합도로 판단하였다.

기본적인 분석 프로그램으로 AMOS 20.0과 SPSS 21.0을 사용하였으며 종단자료에서 흔히 생기는 결측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대우도추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 방식을 사용하였다(Arbuckle, 1996).

4.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부부갈등을 매개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그림 1]과 같은 다변량 잠재성장 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1] 다변량 잠재성장 연구모형

Ⅲ.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가. 주요변수에 대한 기술 통계

주요변인들의 기술통계 결과는 <표 1>과 같다. 양육 스트레스의 평균은 2차 27.36, 3차 28.11, 4차 28.28로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양육참여의 경우 2차 14.57, 3차 14.86, 4차 14.42로 3차 시점에서는 증가하다가 4차 시점에서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부부갈등의 경우 2차 16.12, 3차 16.66, 4차 16.83로 완만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모든 변인들의 왜도 절대값은 3미만, 첨도 절대값은 10미만을 넘지 않았으므로, 주요 변인들은 정규성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Kline, 2005).

<표 1> 주요변인들의 기술통계

	사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2	1605	10	50	27.36	6.377	.122	.127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3	1585	10	48	28.11	6.394	.101	.352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4	1566	10	50	28.28	6.451	-.009	-.007
부 양육 참여2	1593	4	20	14.57	3.486	-.366	-.508
부 양육 참여3	1575	4	20	14.86	3.389	-.355	-.505
부 양육 참여4	1566	4	20	14.42	3.209	-.265	-.357
부부 갈등2	1542	8	39	16.12	6.017	.839	.686
부부 갈등3	1534	8	40	16.66	6.178	.799	.506
부부 갈등4	1567	8	39	16.83	6.034	.615	.018

나. 주요변수에 대한 상관분석

잠재성장모형 검증에 앞서 주요 변인들의 상관계수를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각 시점별로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와 부부갈등은 중간 크기의 정적상관($.295 < r < .408$)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시점별로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작은 크기의 부적상관($-.233 < r < -.111$),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부부갈등은 중간 크기의 부적상관($-.436 < r < -.282$)을 나타내어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변인들 간의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모든 상관계수는 유의수준 $p < .01$ 에서 유의하였다.

〈표 2〉 주요변인들의 상관계수

변인	1.	2.	3.	4.	5.	6.	7.	8.	9.
1.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2	1								
2.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3	.634**	1							
3.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4	.612**	.674**	1						
4. 아버지의 양육 참여2	-.197**	-.111**	-.129**	1					
5. 아버지의 양육 참여3	-.175**	-.207**	-.160**	.658**	1				
6. 아버지의 양육 참여4	-.158**	-.148**	-.233**	.583**	.656**	1			
7. 부부 갈등2	.408**	.303**	.295**	-.421**	-.316**	-.282**	1		
8. 부부 갈등3	.295**	.374**	.304**	-.285**	-.411**	-.312**	.650**	1	
9. 부부 갈등4	.305**	.298**	.412**	-.292**	-.305**	-.436**	.618**	.651**	1

** $p < .01$

2. 변인별 모형 분석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부부갈등을 매개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기 전에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각 변인의 변화합수를 추정할 수 있는 최적의 성장 모형을 분석하였다.

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분석 결과 <표 3>과 같이 선형변화모형이 χ^2 와 TLI, RMSEA등의 모든 적합도 지수에서 단일잠재모형에 비해 우수하였다. 두 모형이 적합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Delta\chi^2=56.89$, $df=3$), χ^2 의 임계역이 .05 수준에서 유의하게 검증되어 선형변화 모형을 채택하였다(홍세희, 2011).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잠재성장 모형 모수추정치들을 살펴보면 초기값은 평균 26.98, 분산 29.75, 변화율은 평균 .047, 분산 1.21로 나타났고 초기값과 변화율의 평균과 분산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차에서 4차까지의 양육스트레스는 매년 0.47 만큼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3년간의 양육 스트레스의 변화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개인차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모형 적합도 및 모수 추정치

		χ^2	df	TLI	RMS EA	초기치		변화율	
						평균	분산	평균	분산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	단일잠재모형	67.49	6	0.97	0.08	27.92**	25.95**		
	선형변화모형	10.60	3	0.99	0.04	26.98**	29.75**	0.47**	1.21**

** $p < .01$.

나. 아버지 양육참여

아버지의 양육참여 분석 결과 <표 4>와 같이 단일잠재모형이 χ^2 값과 TLI, RMSEA 등의 모든 적합도 지수에서 선형변화모형에 비해 우수하였다. 두 모형이 적합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Delta\chi^2=5.77$, $df=3$), χ^2 임계역이 .05 수준에서 유의하게 검증되어 시간의 흐름에 상관없이 증가하지 않는 단일잠재모형을 채택하였다.

아버지의 양육참여의 단일잠재모형의 모수추정치들을 살펴보면 초기값은 평균 14.61, 분산 7.16이며, 성장하지 않는 모형이므로 변화율 값은 추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후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추정 할때는 아버지 양육참여는 단일잠재 모형을 적용하고 2차 패널 데이터의 초기값을 적용하였다.

〈표 4〉 부 양육참여 모형 적합도 및 모수 추정치

		χ^2	df	TLI	RMS EA	초기치		변화율	
						평균	분산		
부 양육 참여	단일잠재모형	52.30	6	0.96	0.09	14.61**	7.16**		
	선형변화모형	46.53	3	0.95	0.10	14.68**	8.57**	-0.70**	0.47**

** $p < .01$.

다. 부부갈등

부부갈등 분석 결과 <표 5>와 같이 선형변화모형이 χ^2 값과 TLI, RMSEA 등 모든 적합도 지수에서 단일잠재모형에 비해 우수하였다. 두 모형이 적합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Delta\chi^2=33.44$, $df=3$), χ^2 임계역이 .05 수준에서 유의하게 검증되어 선형변화모형을 채택하였다.

부부갈등의 선형변화모형 모수추정치들을 살펴보면 초기값은 평균 16.21, 분산은

24.34 변화율은 평균 .037, 분산 0.55로 나타났으며 초깃값과 변화율의 평균과 분산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차에서 4차까지의 부부갈등은 매년 0.37 만큼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3년간의 부부갈등의 변화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개인차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5〉 부부갈등 모형 적합도 및 모수 추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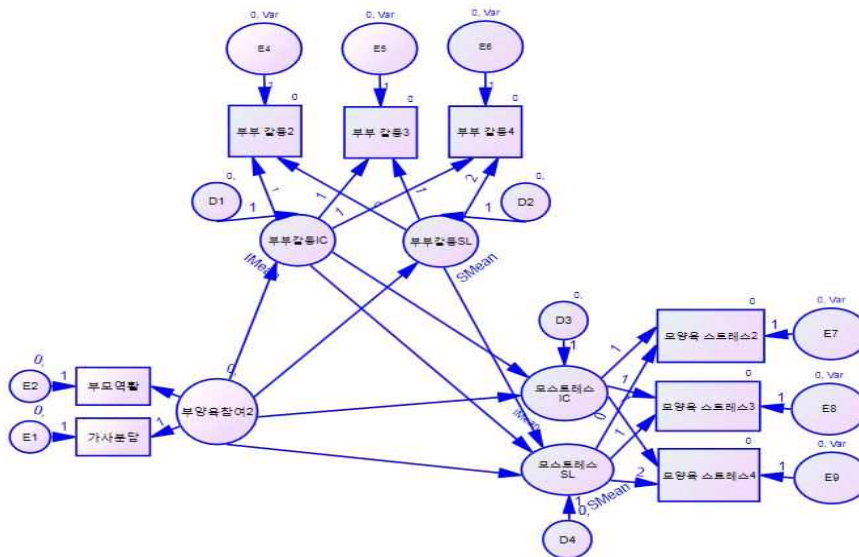
		χ^2	df	TLI	RMS EA	초기치		변화율	
						평균	분산		
부부 갈등	단일잠재모형	37.95	6	0.98	0.06	16.58**	23.79**		
	선형변화모형	4.51	3	0.99	0.02	16.21**	24.34**	0.37**	0.55**

** $p < .01$.

3. 변인간 모형분석

가.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통한 연구모형 검증

변인별 최적 모형 분석과정에서 무 변화모형이 채택된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반영한 1차 수정 연구 모형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1차 수정 모형(최종 연구 모형)

[그림 2]처럼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2차 패널 데이터 이후로 변화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한 연구모형을 분석한 결과 <표 6>과 같이 모수 추정치에서 유의하지 않은 경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부갈등 변화율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초기값에 미치는 경로($t=-1.022$),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초기값에 미치는 경로($t=-0.642$)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유의하지 않은 경로들을 모두 0으로 고정한 후(2차 수정모형) 1차 수정 모형과 카이제곱 검증을 실시한 결과 두 모형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Delta\chi^2=2.177, df=2, p > .05$) 나타나 더 간단한 1차 수정 연구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택하였다.

<표 6> 연구모형의 모수 추정치

	B	β	S.E	t
아버지 양육참여 → 부부갈등초기값	-0.540	-0.391	.033	-16.377***
아버지 양육참여 → 부부갈등변화율	0.036	0.165	.010	3.672***
부부갈등변화율 → 어머니 스트레스초기값	-0.018	-0.072	.017	-1.022
부부갈등변화율 → 어머니 스트레스변화율	2.818	1.823	1.021	2.759**
부부갈등초기값 → 어머니 스트레스초기값	0.404	0.380	.026	15.744***
아버지 양육참여 → 어머니 스트레스초기값	-0.201	-0.137	.028	-7.044***
아버지 양육참여 → 어머니 스트레스변화율	-0.023	-0.068	.036	-.642

** $p < .01$. *** $p < .001$.

최종 연구모형에 대한 모형적합도는 <표 7>과 같이 TLI .936, CFI .956 RMSEA .079로 비교적 양호한 적합도를 나타내었다.

<표 7> 최종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

χ^2	df	p	TLI	CFI	RMSEA
219.261	19	.000	.936	.956	.079

모형에서 추정된 경로계수들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각각의 경로들을 살펴보면 2차년도 아버지의 양육참여 값이 부부갈등의 초기치($\beta=-.391, p < .001$)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초기치($\beta=-.137, p < .001$), 부부갈등의 변화율($\beta=.165, p < .001$)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의 변화율($\beta=-.068, p = 0.521$)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 하지 않았다. 이는 2차년도의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높을수록 부부갈등의 초기치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초기치는 낮으며, 부부갈등 증가 변화율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2차년도의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변화율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부갈등과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부갈등의 초기값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초기값($\beta=.380, p < .001$)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부부갈등의 변화율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beta=-0.072, p = -1.022$)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부부갈등의 변화율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변화율($\beta=1.823, p < .001$)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부부갈등의 초기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도 높으며, 부부갈등의 변화율이 크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변화율도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통한 매개효과 검증

잠재성장모형과 같은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매개효과란 실제적으로 간접효과의 유의성 및 그 영향력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허준, 2013). 표본 데이터가 다변량 정규분포를 가정하지 않는 경우 Amos에서는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방법을 많이 사용하지만(우종필, 2012), 본 연구에서는 아동패널 데이터가 정규성을 지키고 있다고 가정하고 Sobel test를 이용해서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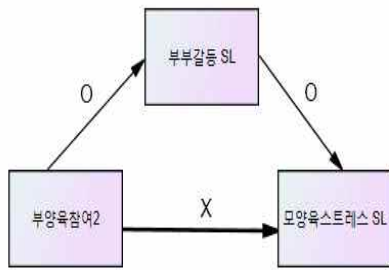
최종모형의 간접 효과를 Sobel test 방법을 이용해 분석해 본 결과 부 양육참여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변화율의 간접효과는 유의하게($p < 0.01$) 나타났으나 양육참여의 초기치와 양육스트레스와의 초기치간의 간접효과는($p=0.25$)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표 6>과 같이 연구모형 검정을 통해 제시된 직접효과와 <표 8>과 같이 Sobel test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된 간접효과로 전체 매개효과를 정리하면 부 양육참여 2 → 부부갈등 초기값 →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초기값 경로는 [그림 3]과 같이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지만 간접효과는 유의한 완전매개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부 양육참여 2 → 부부갈등 변화율 →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변화율 경로는 [그림 4]와 같이 직접효과는 유의하지만 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의 양육참여 초기값이 높으면 부부갈등 변인의 영향 없이 직접적으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감소에 중단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양육참여 변화율이 증가할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감소에는 부부갈등 변인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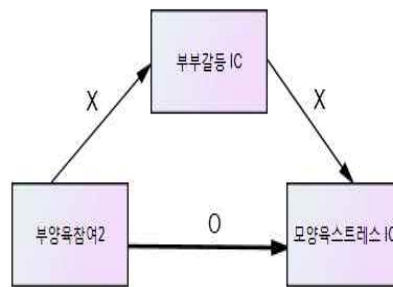
〈표 8〉 연구모형(다변량 잠재 성장모형)의 간접효과 검증(Sobel Test)

간접 효과 경로	비표준화계수	표준화 계수	Z 검정통계량
부 양육참여초기값 → 부부갈등 초기값 →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초기값	.109	.097	2.190*
부 양육참여변화율 → 부부갈등 변화율 →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변화율	-.219	-.242	-1.126

* $p < .05$



[그림 3] 완전매개효과(기울기)



[그림 4] 매개효과 없음(초기값)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만 1세부터 만 3세까지의 아버지의 양육참여, 부부갈등,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종단적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이들의 구조적 관계를 탐색해 보았다. 그리고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부부갈등을 매개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변인별 최적성장모형을 분석해 본 결과 부부갈등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는 선형변화 모형을 보였으며 초기치와 변화량에서 모두 개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개인차를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변인들을 투입할 수 있고, 변화 결과의 다양한 원인 탐색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의 경우 아이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증가

한다는 선행연구(홍희란 2002; Crinic & Booth, 1991)의 결과와 일치하였으며 부부갈등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부부만족도가 감소하고 갈등이 늘어난다는 선행연구(박병선·배성우, 2011; Homish & Leonard, 2007)와 맥을 같이 하였다. 반면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선형변화모형으로 설명되지 않고 단일잠재모형으로 설명되었는데 이는 어머니가 인지하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자녀의 연령이나 시간에 변화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처럼 심리적 변인이 아니고 맥락적 특성을 지닌 변인이기 때문에(김은설·정영해, 2012) 측정시점의 상황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비록 유아의 연령이라는 똑같은 변수는 아니지만 아버지의 학력이나 연령 또한 아버지 양육참여도와는 비일관성을 보인다는 연구(김은정, 2002; 한은규, 2004)들도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아동패널 데이터의 측정도구의 특성상 단지 4개 문항으로 아버지 양육참여의 다양한 영역을 커버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추후 충분한 후속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변인별 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부부갈등은 초기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초기치도 높았으며, 부부갈등이 점점 크게 늘어날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도 더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부부갈등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높을수록 부부갈등의 초기치는 낮았다. 이는 대다수의 선행연구들(김중훈·성지현, 2013; 박미진·강지현, 2012; 이형실, 2012)과 일치하는 연구 결과인데 흥미로운 것은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부부갈등 변화율과의 관계이다.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높을수록 부부갈등의 변화율은 양의 방향으로 점점 더 증가하고 있었다. 이는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높으면 부부갈등은 처음엔 작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한다는 결과이다. 물론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선형모형이 아닌 단일잠재모형이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가 요구되지만 아버지의 양육참여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부갈등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공변인이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변인들을 고려한 후속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아버지 양육참여와 어머니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높으면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초기치가 낮았다. 이는 많은 선행연구들(김정, 2005; 이정순, 2003; 이지원, 2003)에서 지지되는 결과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변화율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Muslow, Caldera, Pursley, Reifman 과 Huston(2002)등의 연구에서 밝혀진 것처럼 배우자와의 친밀한 관계가 영아기 초기의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반면 2년차 이후에는 일반적인 사회적 지지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서 부부갈등의 매개효과를 검증해 본 결과 초기에는 매개효과가 없이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 간의 직접효과만 있었지만 변화율에는 부부갈등의 완전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아버지의 양육참여 초기에 부부갈등의 매개효과가 없이 직접효과만 있었다는 결과를 해석해보면 출산 후 초기 어머니의 양육부담이 워낙 높기 때문에 양육 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한 요인으로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같은 직접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고한 안재진(2011)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변화율에 직접효과가 아닌 완전매개효과가 나타났다는 결과는 기존의 선행연구(유우영·최진영·이숙, 1998; 전춘애·박성연, 1996; Muslow et al., 2002)들과 같이 어머니의 초기 양육스트레스 값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변인은 아버지의 양육참여지만 아이를 키우는 시간이 길어지고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같은 직접적인 변인 이외에 부부갈등과 같은 다양한 간접변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사한 변인인 어머니의 산후 우울에 대한 아버지의 양육참여의 영향은 결혼만족도 및 부부갈등을 통한 완전 매개 역할을 한다는 서정미(2011)의 연구결과도 이를 지지하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아버지의 양육참여 이외에 부부의 인구사회학적 배경, 학력, 성격, 소득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므로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참여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변인들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부부관계에 폭넓은 영향을 미치는 본 연구 결과의 흐름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영유아기 초기에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중요함을 강조해야 한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제시되고 있지만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버지의 양육참여이며, 영유아기 초기의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함은 학문적으로도 입증되고 있다(서영민, 2014; 안재진, 2011). 그러나 우리나라의 육아 정책은 이러한 흐름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2001년 남성에게도 육아휴직이 도입된 이후 2010년 현재 전체 육아 휴직자 중 남성의 비율은 2.37%이며 이중에서도 50% 이상이 민간기업 근로자가 아닌 중앙부처 및 교사, 지방 공무원들이다. 2007년 기준 스웨덴의 남성

육아휴직제도 이용률이 20.8%에 달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아직 국내에서는 남성의 육아휴직 문화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셈이다. 물론 아버지 육아휴직 쿼터제(파파쿼터제)등 정부 차원의 노력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2012년 합계 출산률 1.30의 초저출산국인 우리나라의 현실을 직시한다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줄이는 가장 중요한 변인인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늘릴 수 있는 정책을 고심해야 할 것이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국가 차원의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양육초기에는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같은 직접적인 도움이 양육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도움을 주었지만 이후 시간이 길어지고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참여 만으로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1차 사회적 집단인 가정에서 할 수 없는 국가 차원의 다양한 인적 사회적 지원 정책을 통하여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 아버지의 양육참여 이외에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공 변인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종단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자녀의 수와 어머니의 연령 등 인구학적 변인이나 어머니의 학력, 경제적 소득 등 사회경제학적 요인, 부부갈등이나 아버지의 양육 참여 등 심리학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이미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1-2개의 변인들만 고려하는 횡단적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제시되고 있지만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는 다양한 공 변인이 상호작용하면서 종단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을 통합하는 메타분석 방법, 여러 개의 변인들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다층모형 분석방법, 종단적인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잠재성장 모형 등 다양한 연구 설계와 방법을 이용해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의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이끌어 내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살아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희경(1998). 3세 이하 자녀를 둔 전문·사무직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어머니 역할관과 지원체계를 중심으로. 미출판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서울.

- 강희경(2003). 학동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척도 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2), 31-38.
- 구아영(2000). 부부갈등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이에 대한 부모 지각.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서울.
- 김기현·강희경(1997).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5(5), 141-150.
- 김선영(1985). 부-자녀관계가 자녀의 창의성, 성취욕구 및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상명여자대학교, 서울.
- 김은설·정영혜(2012). 유아 어머니와 아버지 간 자녀간, 심리적·맥락적 양육 특성 및 양육행동의 차이에 대한 상호 비교 연구. 한국아동패널 2012 심층분석 연구, 85-109.
- 김은정(2002). 유아의 정서지능과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와의 관계.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서울.
- 김정·이지현(2005).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 아동학회지, 26(5), 245-261.
- 김정신(2000). 아버지 양육태도와 양육참여도에 따른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미출판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 김중훈·성지현(2013). 부부갈등과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 및 양육행동이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26(2), 87-107.
- 김중훈·양소영·성지현(2013).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와 사회적 지원이 후속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매개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34(1), 87-102.
- 김주환·김민규·홍세희(2009).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논문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도현심·김민정·최미경·김상원·조수정(2012). 부부갈등과 어머니의 분노 및 우울이 유아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3(2), 145-164.
- 류우영·최진아·이숙(1998).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1), 51-61.
- 박미진·강지현(2012). 유아의 기질, 부부갈등, 부모 양육행동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정서·행동연구, 28(4), 331-352.
- 박병선·배성우(2011). 부부관계 만족도의 종단적 변화양상과 예측요인. 한국가족복지학, 34, 41-76.
- 박운영(2005). 아버지의 양육참여행동과 자녀의 사회적 능력 및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미출판 석사학위 논문, 한남대학교, 서울.
- 서문희·양미선·김은설·최윤경·유해미·손창균·이혜민(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서미정(2012). 영아 자녀를 둔 어머니가 지각하는 부의 양육참여와 산후 우울의 관계: 부부관계의 매개효과 및 모의 자아인식의 중재효과. 아동학회지, 32(6), 107-121.
- 서영민(2014). 부 양육참여와 모 양육스트레스의 관계에 미치는 모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및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조절효과. 미출판. 석사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서울.
- 설경옥·문혁준(2006).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및 심리적 자세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대한가정학회지, 44(7), 1-9.
- 손수민(2012). 영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와 비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 비교와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9(1), 331-357.
- 신나리·안재진·이정림·최윤경·송신영·김주연·김영원(2009). 한국아동패널 2011 사업 보고서.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신숙재(199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미출판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서울.
- 안재진(2011). 부의 양육참여가 출산 후 초기 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부부관계의 질을 매개로-. 한국아동복지학 35, 127-157.
- 양득주(1998).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와 취학전 아동의 성역할 고정관념과의 관계. 미출판 석사학위 논문, 경희대학교, 서울.
- 양미경(1996).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와 부모역할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4), 87-101.
- 양진희(2009). 유치원의 아버지 참여 프로그램이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와 역할 수행 및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0(6), 417-442.
- 우종필(2012).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서울: 한나래.
- 유우영·최진아·이숙(1998).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1), 51-61.
- 이정순(2003).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부부관계, 부모성장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4(3), 97-106.
- 이주옥(2008). 일반유아 어머니와 장애유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의 비교. 열린유아교육연구, 13(5), 403-428.
- 이지원(2003)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관련 요인. 한국모자보건학회지, 7(2), 207-216.
- 이형실(2012). 부부갈등, 부모의 양육행동, 부모의 감독과 청소년의 적응 간 관련성. 한국생활과학회지, 21(6), 1083-1093.

- 임현주·최향준·이대균(2012). 출산관련심리, 부부특성,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이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16(3), 93-116.
- 전영자(1996). 주부의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아동가족복지연구*, 1, 159-177.
- 전춘애·박성연(1996). 자녀양육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4(5), 115-129.
- 조성자·손은주(1998).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성 발달과의 관계. *가톨릭교육연구* 8, 39-62.
- 최경순(1992).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참여 행동. 부산여대 논문집, 31, 247-269.
- 최정미·우희정(2004).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3(3), 361-369.
- 허준(2013). 허준의 쉽게 따라하는 Amos 구조방정식 모형. 서울: 한나래.
- 홍성례(1995). 30대 남편의 가족역할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연구.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서울.
- 홍세희(2011). 구조방정식 모형: 중급. 고급 연구방법론 워크샵.
- 홍세희(2012). 종단자료 분석을 위한 잠재성장모형. 에스앤엠 리서치그룹.
- 홍희란(2002).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의 관계.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 Abidin, R. R. (1990). *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 (PSI-SF)*. Charlottesville, VA: Pediatric Psychology Press.
- Abidin, R. R. (1992). The dett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1(4), 407-412.
- Arbuckle, J. L. (1996). Full information estimation in the presence of incomplete data. In G.A. Marcoulides and R. E. Schumacker (Eds.), *Advanc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ssues and Techniques*.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Bollen, K. A., & Curran, P. J. (2006). *Latent curve models a structural equation perspective*. Hoboken, NJ: Wiley-Interscience.
- Cox, M. J., Owen, M. T., Lewis, J. M., & Henderson, V. K. (1989). Marriage, adult adjustment, and early parenting. *Child Development*, 60, 1015-1024.
- Crnic, K., & Acevedo, M (1995). Everyday stress and parenting. In Bornstein, M.H., ed. *Handbook of Parenting*. Vol 4.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1995. pp. 277-298.
- Duncan, T. E., Duncan, S. C., Strycker, L. A., Li, F., & Alpert, A. (1999). *An*

introduction to latent variable growth curve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Mahwah, NJ: Lawrence Erlbaum.

- Harold, G. T. Conger, R. D. (1997). Marital conflict and adolescent distress: The role of adolescent awareness. *Child development, 68*(2), 333-350.
- Hetherington, E. M., & Stanley-Hagan, M. (1999). The adjustment of children with divorced parents: a risk and resiliency perspectiv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 Psychiatry & Allied Disciplines, 40*, 129-140.
- Homish, G. G., & Leonard, K. E. (2007). The drinking partnership and marital satisfaction: The longitudinal influence of discrepant drinking.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5*(1), 43-51.
- Hu, L., & Bentler, P. M. (1999). Cut 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 1-55.
- Kline, R. B. (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2nd ed.)*.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Lamb, M. E. (1975). Fathers: forgotten contributors to child development, *Human Development*, New York: Wiley.
- Lamb, M. E. (1981). Fathers and child development: An integrative overview In M. E Lamb (Ed.),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New York: Wiley.
- Markman, H., Stanley, S., & Blumberg, S. (2001). *Fighting for your marriage Positive steps for preventing divorce and preserving a lasting love, New & Revised San Francisco*. CA: Jossey-Bass Publishers.
- Mulsow, M., Caldera, Y. M., Pursley, M., Reifman, A., & Huston, A. C. (2002). Multilevel factors influencing maternal stress during the first three year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4), 944-956.
- Riley, D. (1990). Network influence on father involvement in childrearing. In M. Cochran, M. Larner, D. Riley, L. Gunnarsson, & C. Henderson (Eds.), *Extending families: The social network of parents and the in children*(pp.131 ~153),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agi, A. (1982).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various degree of parental involvement in child rearing: The israeli project, In M. E. Lamb (Eds.), *Nontraditional families: Parenting and child development*(pp. 205~232), Hillsdale, NJ: Erlbaum.
- Sobel, M. E. (1982). Asymptotic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s

model. In S. Leinhardt (Ed.), *Sociological methodology* (pp. 290-312). San Francisco, CA: Jossey-Bass.

Wentzel, K. R. (1992). Motivation and achievement in adolescence: A multiple goals perspective, In D. Schunk, & J. Meece (Eds), *Student perceptions in the classroom: Causes and consequences*(pp.287~306). Hillsdale, NJ: Erlbaum.

·논문접수 3월 31일 / 수정본 접수 6월 12일 / 게재 승인 6월 22일

·교신저자: 박성덕, 원광대학교 유아교육과 강사, 이메일 mikeyrooke@hanmail.net

Abstract

A Longitudinal Study of the Effects of Father Involvement and Marital Conflict on Mother's Parenting Stress

Eunjung Kim, Sungdeok Park, and Kyungchul Kim

Using longitudinal data analysis, the study investigated how father involvement in child rearing, marital conflict, and mother's parenting stress change over time and how the initial value and the rate of change are correlated. Data from the *Panel Study of Korean Children* (PSKC), in which 1,617 subjects participated from the 2nd (2009) to the 4th(2011) years were analyzed using applied 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

Finding from the analysis of optimal growth model for each variable are as follows:

(1) Marital conflict and mother's parenting stress demonstrated the linear change model, where the variables continued to increase over time, whereas father's child rearing involvement was explained with the single potential model, which did not show such linear change; (2) longitudinal analysis of the mediating effects among the three variables demonstrated that, even though father involvement in child rearing did not have a direct impact on the rate of change in mother's parenting stress, it still indirectly affected the rate of change by means of marital conflict; and that initial time had a direct impact on mother's parenting stress, not via marital conflict.

Key words: longitudinal study, father involvement, maternal stress, parenting stress